다윗, 리더를 리드하는 왕

* 6/17(목) 사무엘상 ❾ 28–31장

사무엘 1–7장	사울 8–15장	사울과 다윗 16–31장
사무엘의 출생 및 성장 1-3장 여호와의 언약궤와 전쟁 4:1-11 엘리 가문의 몰락 4:12-22 언약궤의 행방 5:1-7:2a 회개와 부흥, 에벤에셀 7:2b-14 사사 사무엘의 활동 7:15-17	사무엘의 아들들 8:1-3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 여호와의 응답 8:4-22 이스라엘의 왕 사울 9-11장 사무엘의 고별사 12장 사울의 통치 13-15장	다윗의 등장 16장 다윗과 골리앗 17장 다윗과 요나단 18:1-5 ►사울의 폭주, 다윗의 도피 18:6-30장 · 사울의 다윗 살해 음모 ·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 아둘람 굴로 도피한 다윗 · 사울의 놉 제사장 학살 사건 · 광야로 도피한 다윗 · 엔게디 굴 사울을 살려 준 다윗 · 사무엘의 죽음 · 하길라 산 사울을 살려 준 다윗 · 블레셋으로 도피한 다윗 ►죽음, 사울 가문의 몰락 31장

Before 줄치며 읽기

다윗의 리더십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통독해 보십시오.

After 묵상하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27:1)."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그가 스스로 준비합니다.
광야에서 형성된 다윗공동체 600여명, 그의 식솔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적국, 블레셋에 망명합니다.

• 네고(negotiation)하다, 정치 왕 다윗

다윗의 두 번째 블레셋 망명입니다.
이전에 그는 사울을 피해, 아무 대책 없이 홀로
블레셋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미친 체' 혼신의 연기를 하고, 간신히 살아나왔습니다(21:10-15).

이번에 그는 사울을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다함께
블레셋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미친 척 연기하게 했던 그때 그 사람,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과 정치적 거래에 성공합니다(27:5-6).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사울은 평생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의 그 '챔피언'을 쓰러뜨린 자입니다.
그가 블레셋인들과 1년 4개월 동안 동맹 관계로 살아갑니다.

참고도서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두란노 HOW주석
통성경 길라잡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 응징(punishment)하다, 연기 왕 다윗

블레셋이란 커다란 우산 아래, 다윗 일행들은 모두 시글락에 거주합니다.
매일같이 이스라엘의 마을을 노략질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겉보기에는 블레셋 주변의 소수 민족들을 징벌하여 블레셋에 이득을 주는 일 같았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의 숙적인 남방 부족들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온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약탈품으로,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삽니다(27:8-12).

그런 시글락의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출전합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참전 명령을 내립니다. 동족과의 전쟁을 치러야하는 위기입니다.
갑자기, 블레셋의 방백들이 노발대발 다윗의 참전을 반대합니다.
내분을 원치 않은 아기스 왕이 다윗 참전을 '불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쉬워하는 척을 합니다(29:8). 블레셋의 왕 앞에서,
저번에는 '미친 척'을, 이번에는 '충성스러운 척'을 함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위기가 다윗에게 블레셋에서 빠져나오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다윗의 저속한 도덕성과 영리한 천재성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 안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입니다.

• 극복(overcoming)하다, 광야 왕 다윗

겨우 위기를 벗어난 다윗에게 더 큰 위기가 닥칩니다.
참전 후 사흘 만에 돌아온 시글락이 쑥대밭이었습니다. 비극적 재난입니다.
숙적 아말렉의 노략으로,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 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여자와 아이들을 끌고 갔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혔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백성들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분노가 찾아옵니다. 이 쓰라린 결과를 모두 다윗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 원인 제공자를 돌로 쳐 죽이고자 합니다.
사울을 피해 망명 온 도피처에서, 또 다시 생명의 위협을 마주합니다.
낙심의 거센 모래바람이 다윗을 크게 덮칩니다.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 그는, 최선의 상황과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며 영글었습니다.
낙심의 모래바람 속에서 그가, 최악의 상황에 최선의 주님을 붙잡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30:6, 새번역)."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습니다. 그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그리고 번개 몇 개가 들어, 붉게 익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헛된 것은 없습니다.

• 포용(embracing)하다, 해결 왕 다윗

다윗의 600명 부대는 아말렉의 약탈자들을 추격하기에 너무나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참전 후 귀가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앞의 현실로 인해,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브솔 시내에 도착하자, 부대원 중 3분의 1은 더 이상 걸음을 뗄 힘조차 없었습니다.
400명만을 데리고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헛수고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한 애굽 소년을 향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행실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약속하신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30:8).

그런데, 승리감에 도취된 400명이, 중도에 낙오된 200명을 향해 인색하게 굽니다.
강인한 자들이, 나약한 자들과 전리품을 나누는 것에 반기를 듭니다.
그들의 리더 다윗이 원칙을 정해, 갈등을 해결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움터로 나간 400명이나, 도중에 하차해 소지품을 보관한 200명이나,
주님이 주신 약속의 분깃을 동등하게 분배합니다(30:23-25).
선하신 주님의 방법입니다(마 20:8-15). 약속의 분깃을 모두에게 주십니다.

온정 많은 사람 다윗, 그가 그의 리더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다스립니다.
광야의 계절이 다윗을 <리더를 리드하는 왕>으로 빚어냈습니다.
주님의 <손>이 광야에서 '나'를 빚으십니다. 나를 빚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 번외 : 마감(ending)하다, 초대 왕 사울

사울은 평생 블레셋과의 전쟁에 시달렸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킬러(killer)'였습니다(17:51, 18:27, 30).
만약, 사울이 다윗을 자기편으로 삼았다면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신접한 여인을 찾는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28:7).
그에게는 더 이상 <왕에게 기대되는 직무>를 행할 여력이 없습니다.

사울은 집권한 40년 동안 권력 사유화를 위해, 공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사위'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 결국에는 완전히 달아나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일>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15:10-11).

블레셋과의 전쟁, 길보아 전투의 패배로
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숨집니다(31:2).
같은 날, 사울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31:4-6).

다윗의 삶 전체가 이상적인 삶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과 달리,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는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 달아나지 마십시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가장 안전합니다.